Wait and See



이야기 소개

이 이야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스(Jess)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 일을 하고 씨앗을 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스는 씨앗이 무엇으로 자랄지 궁금해하고, 할머니는 기다려 보라고 말합니다. 결국 씨앗은 채소로 자라고, 제스는 그것을 수확하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을 읽는 팁

이 책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

- 아이는 파닉스 실력을 이용해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나면 소리를 하나씩 내어 읽고,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 다음 단어들은 자주 쓰이지만, 아이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you they all are**
  책을 읽기 전에 아이와 함께 이 단어들을 읽어 보세요. 책을 읽다가 이 단어들이 나오면, 필요에 따라 부모님이 먼저 읽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읽기 전에

- 앞표지를 보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자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씨앗)

  이어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 씨앗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같나요?

- 제목을 함께 읽어 보세요.
  질문: 여자아이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 것 같나요?
  아이가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

- 뒷표지의 문장을 함께 읽어 보세요.

  질문: Jess는 정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2 페이지를 보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할머니의 정원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예: 그네 의자, 울타리, 잔디, 화분, 철제 지지대)

읽는 동안

- 아이가 책을 읽는 동안 그림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아이가 책을 읽을 때는 단어의 소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말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예를 들어 s-oi-l, w-ai-t처럼 소리를 하나씩 읽고, 읽는 동안 해당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게 해 주세요. 그런 다음 소리를 자연스럽게 이어 soil, wait라고 읽도록 해주세요.

- 4 페이지를 읽은 뒤에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할머니가 '기다려 보면 알게 될 거야 (wait and see)'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면 Jess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뜻)

- 6 페이지를 읽은 뒤 잠시 멈추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할머니는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무엇을 주었나요? (흙, 물, 햇빛)

- 9 페이지를 보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Jess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찾아온 뒤 여러 주, 어쩌면 몇 달이 지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씨앗이 키 큰 식물로 자랐기 때문에)

- 15 페이지를 읽은 뒤에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상자 안을 본 Jess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읽은 후

- 질문: 할머니가 Jess에게 좋은 선물을 골랐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말해주기: 모든 사람이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질문: 사람들은 또 어디에서 식물을 기를 수 있을까요?
  (예: 창가, 주말농장, 학교 텃밭)

- 말해주기: Jess와 할머니는 고추, 당근, 옥수수를 길렀어요.

  질문: 어떤 과일이나 채소를 키워 보고 싶나요?

- 말해주기: 채소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질문: 어떤 채소를 먹나요?

- 16 페이지의 스토리맵에 있는 그림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림을 활용해 아이가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도록 격려해 주세요.

[Wait and See]	
Shovel	Basket
Soil	Corn
Seeds	Carrots
Watering can	Dishes
Pots	Present
Boots	Gloves
Peppers	Hand fork

Wait and See



Level 3 Fiction

Wait and See (기다려 보면 알 거야)

이야기 소개

이 이야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스(Jess)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일을 하고 씨앗을 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스는 씨앗이 무엇으로 자랄지 궁금해하고, 할머니는 기다려 보라고 말합니다. 결국 씨앗은 채소로 자라고, 제스는 그것을 수확하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 P2: 제스는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정원에서 땅을 파고 계세요.

☐ P3: 할머니는 씨앗을 흙 속 깊이 심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흙을 다져요.

☐ P4: 제스는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이 씨앗들이 식물로 자랄까요?

기다려 보면 알 거야.

☐ P5: 제스는 화분에 흙을 채웁니다.

그런 다음 흙에 물을 줍니다.

☐ P6: 제스와 할머니는 화분을 햇볕 아래에 놓습니다.

과연 이 씨앗들이 식물로 자랄까요?

기다려 보면 알 거야.

☐ P7: 엄마가 차로 제스를 데리러 옵니다.

곧 봐요, 할머니!

☐ P8: 제스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를 계속 기다립니다.

정원에 가서 보렴.

☐ P9: 제스가 뛰어가서 봅니다. 와!

☐ P10: 식물들이 이제 모두 크게 자랐어요!

제스, 이제 수확할 수 있어.

☐ P11: 제스는 고추와 당근, 옥수수를 땁니다.

☐ P12: 제스와 할머니는 당근을 아작아작 먹습니다. 냠냠!

☐ P13: 그런 다음 제스는 엄마와 함께 가야 합니다.

☐ P14: 곧 할머니가 제스를 방문합니다.

할머니가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제스.

☐ P15: 이제 제스도 정원에서 땅을 팔 수 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 P16: 이야기 다시 말하기